

베이비부머의 근로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상문, 김기중, 현병환*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Effect of Baby Boomers' Job Expectation on Life Satisfaction

Sang-Moon Park, Gi-Joong Kim, Byung-Hwan Hyun*
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은퇴가 가져올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주관적 근로기간 기대감, 일자리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와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대상으로 실시한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설문결과 중 대한민국 남성 베이비부머 908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중지표다중원인(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IMIC)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간 기대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정년연장 재논의를 포함한 베이비부머의 근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고려와 동시에 개인도 근로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좀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대하는 근로 기간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건강적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건강은 건강 관련 비용지출 감소는 물론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이 국가의 의료복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노동복지 측면에서도 사회 안전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의 근로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orking period expectations, job expectations and life expectancy of baby boomers in the context of their rapid retirements and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ir retirements on society, family and individu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expectations of baby boomers. From the 7th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0, 2018, a total of 908 male baby boomers in Korea were analyzed using a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MIMIC)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 expectation of the working period increase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work while considering the policies of the state and society, including reconsider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so that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of baby boomers could increase. It was found that the high expectation of working period increased the health and economic life satisfaction. The health of baby boomers reduced health-related expenses, and individual economic stability bore a lot of medical and welfare expenditures of the n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baby boomers need sustainable work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Keywords : Baby Boomer, Retire, Life Satisfaction, Work Expectation,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Corresponding Author : Byung-Hwan Hyun(DaeJeon University)

email: hyunvv@gmail.com

Received August 9,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정치적 격동기와 함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1950년대, 196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냈으며,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가적 대변혁의 시기를 경험하였고,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90년 후반 IMF를 겪으며 실직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1].

베이비부머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서구의 가치관을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에 대한 헌신적이면서도 자신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2]. 또한, 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나 은퇴 후에도 약 20년 내외의 노후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는 약 727만 명(전체인구의 14%)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65만 명(전체인구의 14.8%)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5년부터 1955년생을 시작으로 서서히 은퇴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1955년생이 처음으로 6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고 있다[3].

그런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이면 1,050만 명으로 늘면서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 1,90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55~79세)는 64.9%에 달했는데, 이유는 생활비 보탬(60.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2.8%)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화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을 해야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4].

한편 은퇴 후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0년대 말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공식적 은퇴와 더불어 은퇴 설계와 생애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 상승에 따른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 증가, 고용의 불안정성은 은퇴 이후의 시기가 생애 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짧아진 소득 활동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이

후의 시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생애 설계 차원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은 물론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가족 및 친구나 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활의 질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행복과 관련된 지수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OECD에서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활의 질 척도로 주거, 환경, 건강 등 11개 부문으로 구성된 Better Life Index, National Index of Well-Being 등을 조사하고 있다[5,6].

통계청에서도 2012년부터 평균수명과 함께 격년으로 건강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재무적 요소들에 비재무적 요소를 추가하여 생활의 질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의 양'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수명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명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의 노후 생활의 질 측정 결과를 직관적으로 가시화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 기대수명(Life Expectancy)과 비교하여 수명(Life Span)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있다. 건강수명의 개념은 신체적 건강의 측면으로, 전체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보건의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재무적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은퇴 이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보유한 자산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때 준비된 은퇴자산이 모두 소진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제수명'으로 가계가 보유한 은퇴자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7].

KLoSA 데이터를 사용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사례가 있었고, 현직에 종사하는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8,27].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근로기간 기대감 또는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학력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근로기간과 일자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1. 일을 하고 있는, 주관적 근로기간 기대감

- 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일하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미래에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일에 대한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기대감과 일자리 기대감

‘기대’(expectation)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고 ‘주관적 기대’ 또는 ‘미래기대’는 성취나 갈망하는 행동 변화의 주요한 기능이다[9].

긍정심리학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개인의 부정적인 면을 치료,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관점이 확장되어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계발해 나가는 점에 대한 관점도 중요시되고 있다.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 낙관주의자, 즉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적극적이고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스트레스 사건의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여 목표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비관주의자들은 행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의 좋지 않은 영향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10]. 또한, 어려운 시기 동안 좀 더 적은 양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고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여 상황을 잘 이겨낸다고 한다[11].

이상을 통해 주관적 기대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당면한 어떤 사안이나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긍정적 기대감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이기는 힘”이라 할 수 있다[12].

특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앞으로 자신이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Feather(1990, 1992)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기반으로 설명될 수 있다[13]. 기대-가치이론은 특정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 수준이나 강도를, 특정 목표의 가치에 기반하여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인지-동기이론 중 하나이다.

다른 한 가지는 성과-기대(outcome-expectancies) 이론으로 자신의 행동이 특정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 혹은 예상을 의미한다. 이를 미취업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은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 혹은 면접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하위 기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는 행위의 필요성과 가치를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가 구직활동의 강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Feather & O'Brien(1987)의 기대-가치이론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기대감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한 가지는 효용-기대(efficacy-expectations)로 성과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상 은퇴 시기가 도래하는 베이비부머가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령대별로 미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과 현재 비 고용상태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감으로 구성하였다.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생활 전반에 대하여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으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16]. 삶의 만족이란 일상의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을 느끼며 주위환경에 잘 대응하고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기쁨과 같은 정서적 요소뿐 아니라 적응과 개인의 욕구 충족까지를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연구하였다[17]. 또한,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18,19].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베이비부머에게 삶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많이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 기대수명은 82.7세로, 일반적인 은퇴 나이인 65세를 가정했을 때, 한국의 중·고령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약 18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은퇴 시기에 다다른 베이비부머들이 만족한 삶을 살

아가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는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에 따르면, 중·노년기에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당하게 되면,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사회적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가족 내 지위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주도권 상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족 구성원 간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를 보내야 할 노령기를 가장 고되고 고독하게 보내게 될 수 있다.

한편, 은퇴 후 중·고령자들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만족도란, 은퇴한 고령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은퇴란 한 인간의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사건이며,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은퇴 중·고령자는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처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게 된다[20].

게다가 은퇴하는 것 자체만으로 중·고령자들은 생활의 이유와 자기의 존재가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고, 사회적 관계망 협소로 인한 고립과 절대빈곤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은퇴가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다방면에서의 노후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퇴가 중·고령자 생활의 질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3 주관적 일자리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와 개인 배경 요인

일자리 기대감은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미고용 상태의 경우 가까운 기간 내에 자신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비교적 건강하게 활발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에 비해, 장년층 이후의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침체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심리상태가 위축

되는 경향이 있다(채수미, 2016). 일자리 기대감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장년층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나이[21], 건강상태[22, 23], 학력[23, 24], 경제적 상황[22, 24, 25] 등 다양한 개인 배경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민석(2016)은 장년층의 경우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을 밝혔다[26]. 이는 성지미와 안주엽(2006)의 연구에서 좋은 건강상태를 지닌 중고령자가 보통의 건강상태를 지닌 중고령자에 비해 취업상태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을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미취업 중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27]. 최종학력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의지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낮았다[28]. 강순희(2016)의 연구에서는 고졸자의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은퇴 후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29].

비교적 건강하게 활발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에 비해, 장년층 이후의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침체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심리상태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장년층의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이 커지지만[24], 소득이 낮은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구직을 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감 또한 소득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취업 장년층(55~74세)에 대한 일자리 기대감과 관련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건강 혹은 고령 등의 문제로 낮은 일자리를 기대한 장년층이 많고, 낮은 일자리 기대감을 갖는 미취업 장년층에게 사업 내용 자체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절한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다[12].

장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 은퇴 이후의 사회활동, 그 밖의 여러 요인에 의해 일자리 기대감이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장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재유입하려는 고용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해보면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증가는 구직에 대한 높은 성과-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기대감,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0]. 또한,

재취업 의욕의 경우 경험이 없는 직종과 관련해서는 나이, 원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에는 학력과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있다[8].

그러나 아직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근로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미취업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업 및 미취업 베이비부머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기대감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연구모형 설계

3.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2018년 7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 연구패널은 향후 초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 중·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쳐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생물학적 현상(건강, 정신 등)을 측정, 파악하고 다양한 학제적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사된 것이다[31].

2018년 실시된 제7차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응답 당시 55년~63년생인 베이비부머 나이 해당자 1022명을 추출하였고 이상치, 결측치 및 정규성 검증의 데이터 정제를 통해 114명을 제외한 9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업자는 767명, 미취업자는 141명이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논의의 근거는 취업자 또는 미취업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기대감과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의 측정 문항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는 취업 중인 자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일을 5년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연령대별로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자의 일자

리 기대감은 “앞으로 구직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가 ‘나는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해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연속변수인 원 자료를 사용하여 비율척도로 분석하였다.

3.3 연구모형

전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베이비부머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 기대감(근로기간,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일자리 또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요인으로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을 설정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근로기간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지표다중원인(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IMIC)모형을 중심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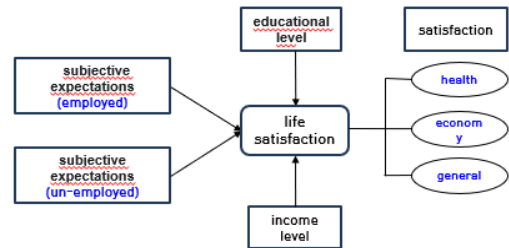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자료 분석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응답자 나이 55년생~63년생인 베이비부머 중 자신의 주관적 기대감과 일자리를 기대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하나의 잠재변수 내에 결과지표와 원인지표가 공존하는 형태의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model: MIMIC) 모형을 사용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방법으로 잠재변수에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을 함께 투입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기대

감과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이 변수가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MIMIC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MIMIC 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각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통제변수인 학력과 소득을 각각 4 수준으로 나누어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χ^2 검증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CFI와 TLI는 1부터 0의 연속체로 나타나고, 그 값이 .90 이상이면 '우수', .80 이상이면 '좋은' 모형(Tucker & Lewis, 1973),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좋은', .05~.08 사이이면 '좋은' 모형으로 해석한다[28].

그리고 MIMIC 모형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회귀계수를 제시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의 기술 통계치, 상관분석, MIMIC 모형 검증은 Amos 22.0을 사용하였고 통제변수인 학력과 소득수준 3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검증은 SPSS 22.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실증 분석

5.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2018년 실시된 제7차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55세~63세인 베이비부머 나이 대상자 1,022명을 추출하였고 이상치, 결측치 및 정규성 검증의 데이터 정제를 통해 114명을 제외한 908명의 유효자료를 기초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인구 통계적 변수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각 하위차원에 따른 백분위 점수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은 55~59세가 512명, 60~63세가 396명이며, 학력은 중졸이하=56명, 중졸=104명, 고졸=457명, 대졸=291명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개인총소득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로 추출된 사분위 값을 Q1(1,490만원 이하)=208명, Q2(1,491~2,872만원)=209명, Q3(2,873~4,258만원)=208명 그리고 Q4(4,259만 원 이상)=208명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er

		no. of sample	life satisfactio n(health)	life satisfactio(economy)	life satisfactiion (general)
		908	66.57	61.73	66.42
age	55~59	512	67.344	61.953	67.070
	60~63	396	67.146	62.904	66.995
educati on level	under middle	56	63.750	57.679	61.429
	middle	104	66.058	60.481	64.904
	high	457	66.346	61.050	66.258
	univ	291	69.794	66.014	70.103
employ ment	non-empl	512	62.482	59.433	65.745
	empl	396	68.136	62.907	67.275
income level (N=834)	Q1	208	63.510	60.192	65.577
	Q2	209	65.502	57.847	63.780
	Q3	208	68.134	63.110	67.321
	Q4	208	70.625	67.212	70.625

note : 소득수준 관련 표본수는 미응답과 결측치 를 제외한 표본 수임

5.2 일변량 분산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인 학력 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검증에 따른 결과는 아래 Table 2, Table 3과 같다. 집단 간의 차이검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우선 통제변수 학력수준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수집된 패널 자료를 토대로 각 집단을 더미변수화 하였고 소득수준은 개인 총소득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로 추출된 사분위 값을 Q1, Q2, Q3 그리고 Q4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력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경제) $F=5.340^{***}$, 삶의 만족도(건강) $F=8.405^{***}$ 그리고 삶의 만족도(전반) $F=9.841^{***}$ 에 미치는 영향과 Table 3의 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경제) $F=10.597^{***}$, 삶의 만족도(건강) $F=14.091^{***}$ 그리고 삶의 만족도(전반) $F=9.928^{***}$ 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Table 2. Variance analysis of education level and life satisfacti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level
life satisfactiion(health)	inter group	3090.539	3	1030.180	5.340***	.001
	inner group	174381.157	904	192.900		

	total	177471.696	907			
life satisfactiio (economy)	inter group	6263.17 8	3	2087.726	8.405***	.000
	inner group	224545.963	904	248.392		
	total	230809.141	907			
life satisfactiion (general)	inter group	5247.535	3	1749.178	9.841***	.000
	inner group	160683.192	904	177.747		
	total	165930.727	90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Variance analysis of income level and life satisfacti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level
life satisfactiion (health)	inter group	6002.009	3	2000.670	10.597***	.000
	inner group	156701.228	830	188.797		
	total	162703.237	833			
life satisfactiion (economy)	inter group	10185.215	3	3395.072	14.091***	.000
	inner group	199984.569	830	240.945		
	total	210169.784	833			
life satisfaction (general)	inter group	5316.820	3	1772.273	9.928***	.000
	inner group	148162.916	830	178.510		
	total	153479.736	833			

* $p < .05$, ** $p < .01$, *** $p < .001$.

5.3 상관분석

통제집단으로 사용된 학력 수준과 소득수준 두 집단에서 주관적 기대감과 일자리 기대감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Table 4 참조), 이외의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로 주목할 점은 미취업자의 일자리 기대감(미취업자)과 주관적 기대감 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629**, $p < .01$)가 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control variable		S_exp ect'n	J_expec t'n(non _emp)	life satisfacti on(health)	life satisfacti on(econ omy)	life satisfacti on(gen eral)
	edu_le vel	income _level					
edu_l	1						
income_l	.270* *	1					
S_expect' n	-.041	-.017	1				
J_expect' n(non_e mp)	.018	.000	.629**	1			
life satisfactiio n(health)	.120* *	.209**	.263**	.160**	1		
life satisfactiio n(economy)	.150* *	.203**	.303**	.192**	.588**	1	
life satisfactiio n(general)	.173* *	.176**	.275**	.139**	.491**	.597**	1

** $p < .01$

5.4 연구모형 검증

소득수준과 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기대감과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건강,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학력을 통제한 MIMIC 모형을 설계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를 살펴 보았다. χ^2 값은 8.475, 자유도(df) 8, CMIN/DF=1.059로 모형이 적합하고, 타 적합도 지수인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본 결과 TLI=.998(>.90), CFI=1.00(>.90)로 적합도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RMSEA는 .008로 좋은 적합도 기준(RMSEA<.08) 이하로 나타나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지수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 자료가 MIMIC 구조모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근거로 주관적 기대감과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건강,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한 MIMIC 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제변수인 학력과 소득수준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건강), 삶의 만족도(경제)에 대한 추정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소득과 학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반영하여 통제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주관적 기대감과 일자리 기대감이 삶의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렇

다면 그러한 영향들이 종속변수로서 삶의 만족감을 구성하는 건강과 경제에 대한 만족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Table 5. Inter-variable path analysis

path		Non-standar dized coefficien	standard error	Std.,Estimate	
S_expect'n	→	life satisfactiion	.085	.022	3.9
J_expect'n (non_emp)	→	life satisfactiion	.091	.017	5.392
life satisfactiio n(health)	→	life satisfactiion (health)	1.020	.058	17.681
life satisfactiio (economy)	→	life satisfactiio (economy)	1.410	.077	18.345
life satisfactiio n(general)	→	life satisfactiion (general)	1.629	.411	3.961
income	→	life satisfactiion	.001	.0001	5.936
model fit	x²=73.246, df=13 p=.000, TLI=.885, CFI=.947, RMSEA=.071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감은 주관적 기대감의 영향력 $B=.085(t=3.90, p<.001)$ 와 일자리 기대감의 영향력 $B=.091(t=5.392, p<.0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런 영향이 건강 만족도 $B=1.020(t=17.681, p<.001)$ 와 경제 만족도 $B=1.410(t=18.345, p<.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타났다. Fig. 2는 연구모형에 대한 유의미한 경로를 요약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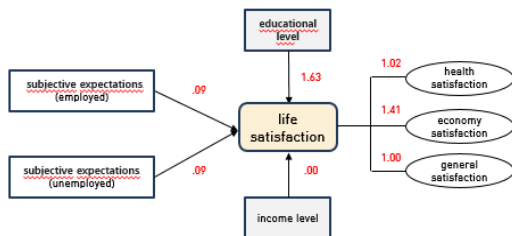


Fig. 2. SEM analysis result

Note :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그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를 의미함

6.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고령

화연구패널(KLoSA) 자료의 남자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로 주관적 근로기간 기대감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로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지표다중요인(MIMIC) 모형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건강 만족도와 경제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로 나누어 학력과 소득을 통제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주관적 근로기간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소득과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경제) $F=5.340^{***}$, 삶의 만족도(건강) $F=8.405^{***}$ 그리고 삶의 만족도(전반) $F=9.841^{***}$ 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경제) $F=10.597^{***}$, 삶의 만족도(건강) $F=14.091^{***}$ 그리고 삶의 만족도(전반) $F=9.928^{***}$ 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는 미래의 근로 지속성에 대한 긍정심리가 '열악한 사회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비록 현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자신이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 곧 긍정적인 마음 가짐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 기대감이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식교육과 부모봉양 등으로 미쳐 은퇴가 준비되지 못한 베이비부머에게 국가적으로는 재취업과 창업 및 창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복지적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개인의 질병치료와 같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추가적인 사회적 제도 지원과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리나라의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49.1세이고, 실제 은퇴 나이는 이보다 높은 71.1세인 점(한국고용정보원, 2017)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전후로 신중년(50세~65세) 및 노년 세대까지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S. Park, "A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and Successful Retirement Relationship of Baby Boomers", *Aged Welfare Study*, Vol.58, pp.281-302, 2012.
DOI: <https://doi.org/10.21194/kjgsw..58.201212.281>
- [2]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determinant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Vol.60, No.3, pp.275-297, 2008.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8.60.3.012>
- [3] Y. S. Yu, S. D. Jo, "The Effect of Baby Boomers' Retirement Readiness on the Intention to Us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7, pp. 549-558, 2020.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10.14.7.549>
- [4] M. C. Kim. (2020. 1. 1.). "8 million baby boomers begin to enter the age of 65... Life satisfaction is 5.9 out of 10", *The Chosun Ilbo, specia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1/2020010100248.html
- [5] K. J. Yoon, G. Y. Kim, (Jan. 2010).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Happiness Index in OECD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Forum*, pp.86-98, 2010.
<http://lps3.kiss.kstudy.com.libproxy.dju.ac.kr/thesis/thesis-view.asp?key=3542394>
- [6] K. J. Yoon, J. H. Lee,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OECD Countries Using "Your Better Life Index", *Health and Welfare Forum*, 2012(4), pp.71-81, 2012.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22128&volume=20329>
- [7] H. J. Choi, M. J. Kim_A, J. Y. Lee, Min-Jung Kim_B, "Measurement of Retirement Readiness of Korean Households through Calculation of Economic Lifespan",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 No.4, pp.47-71, 2012.
DOI: <https://doi.org/10.2139/ssrn.3085186>
- [8] J. H. Yu, U. H. Jo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search on Policy Development*, Vol.16, No.1, pp.75-11, 2016.
DOI: <https://doi.org/10.35224/kapd.2016.16.1.004>
- [9] L. Dutra-Thome, S. H. Koller, E. H. Mcwhirter, B. Mcwhirter,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pplication of the Future Expectation Scale for Adolescents (FESA) in Brazil", *Psychology/Psicologia Refl exão e Crítica*, Vol.28, No.2, pp.331-339, 2015.
DOI: <https://doi.org/10.1590/1678-7153.201528213>
- [10] K. J. Park, "The Effects of Optimism, Control Belief, and Self-Efficacy on Coping with Test Stress and Test Performance", *Life Research*, Vol.11, pp.31-54, 1997.
- [11] M. F. Scheier, S. S. Carver,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6, pp.201-226, 1992.
DOI: <https://doi.org/10.1007/bf01173489>
- [12] H. H. Jeon, C. A. Lee, J. W. Choi, S. H. Hong, "Typicalization of Job Expectation Changes and Influence Factors of Unemployed Seniors Using the Mixed Growth Model", *Labor Policy Research*, Vol.19, No.4, pp.97-126, 2019.
DOI: <https://doi.org/10.22914/ilp.2019.19.4.004>
- [13] N. T. Feather, "Expectancy value theory and unemployment effec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65, No.4, pp.315-330, 1992.
DOI: <https://doi.org/10.1111/j.2044-8325.1992.tb00508.x>
- [14] V. W. Vansteenkiste, H. D. W. Lens, N. T. Feather, "Understanding unemployed people's job search behaviour, unemployment experience and well being : A comparison of expectancy value theory and self determina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4, No.2, pp.269-287, 2005.
DOI: <https://doi.org/10.1348/014466604x17641>
- [15] N. T. Feather, G. E. O'Brien, "Looking for employment : An expectancy-valence analysis of job seeking behaviour among young peop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78, No.2, pp.251-272, 1987.
DOI: <https://doi.org/10.1111/j.2044-8295.1987.tb02244.x>
- [16] N. H. Kim, S. I. Choi, "The effect of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wome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11, pp.241-252,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11.241>
- [17] J. K. Park, M. Y. E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Rehabilitation Welfare*, pp.149-165, 200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3854>
- [18] H. S. Lee, "Quality of Life for Koreans: Focusing on the Objective Dimension", *Korean Sociology*, Vol.31, summer issue, pp.198-200, 199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07662>
- [19] E. D.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20] C. J.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Retirement Period on Subjectiv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Korean Gerontology*, Vol.33, No.3, pp.681-698, 2013.
<https://kmbase.medric.or.kr/KMID/0379220130330030681>
- [21] M. R. Kim,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Korean Gerontology*, Vol.32, No.1, pp.145-161, 20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

[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640903](https://doi.org/10.21194/kjgs.w.52.201106.205)

- [22] K. T. Kim, H. S. Park, S. H. Park, B. H. Ak, S. S. Choi, M. J. Park,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and Psychosocial Factors on Suicidal Thoughts in the Elderly", *The Elderly Welfare Study*, Vol.52, pp.205-228, 2011.
DOI: <https://doi.org/10.21194/kjgs.w.52.201106.205>
- [23] E. R. Lee, J. H. Kang, J. P. Jeong, "Factors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290-300,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290>
- [24] S. M. Chae, "Social and psychological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old age", *Health and Welfare Forum*, Vol.239, pp.84-96, 2016.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40418>
- [25] Y. J. Jo, "The Effect of Productive Activities and Family Support for I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Females", *Korean Population Studies*, Vol.30, No.2, pp.23-44, 200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98571>
- [26] M. S. Yo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working elderly in Seoul", *Seoul Institute Policy Report*, Vol.209, pp.1-22, 201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5554>
- [27] J. M. Seong, J. Y. Ahn, "Employment Determining Factors for Middle-aged and Elderly", *Labor Policy Research*, Vol.6, No.1, pp.39-74, 20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025951>
- [28] K. S. Park,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s willingness to re-employment and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c Technology*, Vol.16, No.6, pp.3845-385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6.3845>
- [29] S. H. Kang, "National Pension Service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Reporter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pp.117-140, 2016.
DOI: <https://doi.org/10.35273/jec.2016.6.3.006>
- [30] W.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Global Social Welfare Research*, Vol.9, No.2, pp.95-114, 2019.
<http://lps3.kiss.kstudy.com/libproxy.dju.ac.kr/thesis/thesis-view.asp?key=3738333>
- [3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Employment Survey Analysis System KLoSA Survey Overview", 2021.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 [32] W. P.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 Wise & Company*, 2017.

박 상 문(Sang-Moon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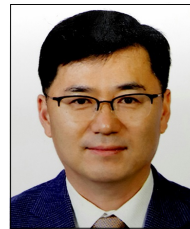
- 198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학사)
- 2011년 8월 : 목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SMC&C 대표 컨설턴트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경영전략, R&DB, 전략기획, 인사조직, HRD

김 기 중(Gi-Joong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명지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2014년 9월 : 경영지도사(중소벤처기업부)
- 2015년 2월 ~ 현재 : (주)KM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마케팅, 경영전략, 품질경영, 기술경영

현 병 환(Byung-Hwan Hyun)

[정회원]



- 2004년 1월 ~ 2013년 12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연구센터장
- 2006년 1월 ~ 2015년 12월 : UST 기술경영정책학 교수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 혁신클러스터 학회 회장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 2017년 5월 ~ 현재 : 과기정통부 바이오아이크로아사업단장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테뉴어 정교수)

<관심분야>

기술경영, R&D기획, 전략기획, 기술사업화